

2023년 4월 21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통신, 방송, 인터넷은 즉시 보도 가능

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보도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·문의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지원실 강성한 실장(042-363-7801), 조은정 주임(7808)
·배포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홍보실 이도열 실장(042-363-7111), 박은영 과장(7112)

정부 지원받아 스마트기기 설치할 때 카드할부 결제 가능해진다

- 소진공, 공공기관 최초로 자부담금 카드 12개월 무이자 할부 결제 도입
-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도입 부담 낮춰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가속

- 앞으로 소상공인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활용해 키오스크나 서빙로봇과 같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때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.
-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)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사장 박성호)은 소상공인이 자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나카드(대표 이호성)와 제휴하여 신용카드 할부결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.
- 이에 4월부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은 자부담금 납부 시 기존 계좌이체 방식뿐 아니라 제휴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진다.
-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중에서 정책수혜자가 자부담금을 카드할부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최초의 사례이다.
- 한편, 할부결제 제도가 적용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할 때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.

- 스마트기술 공급가액의 70%(최대 5백만원)는 국비 보조가 가능하나, 30%에 해당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.
 - 기존에는 계좌이체로만 자부담금 납부가 가능했으며, 소상공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스마트기술 보급을 받을 수 없었다.
 - 이처럼 자부담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사업구조로 인해 소상공인의 참여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.
-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제휴카드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카드는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는 한편, 기술공급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를 안내하였다.
- 제휴카드로 스마트기술 자부담금 결제 시, 무이자 12개월의 혜택을 제공한다. 할부이자의 40%는 기술공급기업이, 60%는 하나카드가 부담한다. 이에 소상공인은 자부담금과 부가세를 최대 무이자 12개월*까지 할부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.
 - * 참여 소상공인이 2·3·12개월 무이자 할부 중 선택 가능
 - 아울러 신용카드 발급 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한도를 제공하고, 하나은행에서는 참여 소상공인 대상 신용대출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.
-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“공공기관 최초로 자부담금 할부결제가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구입비용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.”며, “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절차 간소화와 편의성 개편방안을 꾸준히 마련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
- 현재 스마트상점 홈페이지(<https://www.sbiz.or.kr/smst/index.do>)에서 “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”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다. 접수 마감일은 5월 14일(일) 18시까지이다.
- 서면평가와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70% 국비 지원으로 스마트기술을 구입할 수 있다.

<사진자료 : 없음, 참고자료 : 없음>